

시간강사들의 교육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

Analysis of Usage Behavior for the Educational and Academic Information of Part-time Instructors

오 선 경 (Seon-Kyung Oh)**

목 차

- | | |
|--------------------|-------------------------|
| 1. 서 론 | 3.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 |
| 2. 시간강사와 교육학술정보서비스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유능한 인재 배출, 연구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지식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강사를 위한 국가 및 대학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는 그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그들이 처한 정보환경과 정보요구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행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학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art-time instructors are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strengthening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and social knowledge and academic development. Therefore, academic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for part-time instructors are essential for their educational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is study, researcher suggested various methods for providing efficient educational and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ir information environment, information needs, and educational and academic information recognition and usage behavior by applying the survey method to part-time instructors.

키워드: 시간강사, 정보이용행태, 교육학술정보, 교육학술정보서비스, 이용자 연구

Part-time Instructors, Information Usage Behavior, Educational and Academy Information Service, User Study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609).

** 경상대학교 강사(sk2898@hanmail.net / ISNI 0000 0004 6419 9098)

논문접수일자: 2020년 7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8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 237-262,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3.23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거나 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문후속세대 내지 예비 교수자원으로서 전임 교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업을 담당하고 연구를 통해 유능한 인력 배출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고용불안과 보수수준이 열악하여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 정도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학구조조정으로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거나 담당강의 수가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발의하였고, 그 해 12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시간강사법은 당초 시행일에서 4차례나 유예되었고 2018년 개정된 법률을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적용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강사의 교원 지위가 제한적이어서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법적신분과 지위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대학은 강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처우개선 및 재정지원, 즉 연구비 지원, 강의비율 및 강사료 인상, 연구공간 제공, 교육학술정보의 접근성 등을 보장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그 중에서 교육학술정보서비스는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와 논문 및 저서 작성의 기초데이터로 사용되어 강의능력과 연구실적을 높여 본인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특강준비, 학회활

동, 자문활동, 위원회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강사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정보유통체계 및 서비스에 반영한다면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서비스 범위에 제외되어 있는 잠재적 이용자에게까지 봉사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정보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시간강사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교육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시간강사가 처한 정보환경과 정보요구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의 검색·접근·입수·활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연구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정보환경과 정보요구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개관

국내에서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2010년 이후에 주된 교육학술정보 이용자인 교수, 대학(원)생,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한 국내의 연구를 개

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사례로 Heider 등(2012, 1-12)은 인디애나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수진 111명의 연구와 교육에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연구를 위해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다만, 일부 교수진은 홍보활동 부족을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사서와 교수진 간의 밀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의 키쿠치(菊池 信彦 2013, 13-20)는 연구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대학 신진연구자(若手研究者)와 도서관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이 인문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문헌자료는 연구과정에 필수적임에도 그들의 자료수집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특히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전임 교원 지위에 오를 때까지 자료수집 때문에 고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인문과학 박사학위를 많이 수여하는 상위 10개 대학도서관(大阪大, 東京大, 筑波大, 京都大, 東北大, 早稲田, 北海道大, 名古屋大, 國學院大, 廣島大)을 대상으로 시간강사를 위한 서비스를 조사·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전임교원과 동등한 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도서관에 한해 대출책수가 전임교원보다 적거나 대학원생과 동일한 수준이고, 계약상 문제로 전자자원은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Kumar, Salmani and Baweja(2014, 119-138)는 크루크셰트라 대학교 7개 분야(식물학, 바이오 화학, 생명공학, 동물학, 미생물학, 가정학, 생명과학 내의 환경연구기관)의 총 121명(교수 50명, 연구자 71명)을 대상으로 정보검색행태를 조사·분석하였고, Bickerstaff와

Chavarin(2018, 1-12)은 시간강사의 삶과 요구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과 실행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시간강사, 행정가 집단을 대상으로 59개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인터뷰하고 6개 대학 총 254명 시간강사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간강사는 문제발생시 활용 가능한 전문적인 관계 부재, 정보원への 불공평한 접근, 캠퍼스 이용시간 제한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성공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189-208)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박사과정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5개 범주, 13개 질문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을 균등하게 선발하여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두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김항우(2012)는 법학 전문대학원생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학술정보이용 행태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명희, 정혜련(2012, 299-316)은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분야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세부전공, 연구경력, 연령에 따라 설문조사하여 정보이용 목적, 이용 경로, 자료유형별 이용 정보원, 소속기관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였다. 한종엽, 서만덕(2014, 163-187)은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연령, 학력, 연구분야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수립과 전문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향후 맞춤형 정보검색서비스, 프로젝트지원서비스, 연구동향분석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2015)은 경영학 관련 학회인 K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관주, 김수진(2015, 129-153)은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정보이용행태 관련 국내 연구들을 과학기술, 사회과학, 그 외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주제별 연구자의 정보이용 목적, 정보요구, 정보이용 유형,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안하였다.

2. 시간강사와 교육학술정보서비스

2.1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시간강사는 대학의 교원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이다. 그리고 동법 제14조2(강사) 제1항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

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와 제2항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사의 법적 신분은 대학의 교원이고 제5항(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의 규정에 따라 예우와 처우개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시행된 후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전체 학점 대비 강사가 담당한 학점 비율은 2019년 1학기 19.1%에서 올해 1학기에 20.4%로 1.3% 늘어났으나 2018년 1학기 22.8% 보다 감소하였다. 반면에 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 비율은 2018년 1학기 65.6%에서 2019년 1학기 66.6%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1학기에도 66.7%로 소폭 더 늘어났다.¹⁾ 게다가 졸업이수학점 축소, 최대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완화, 과목통폐합 등 교육환경도 나빠지고 수업 선택권 제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임순광 2019, 64).

「고등교육법」은 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 부여,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의 신분 보장, 처우개선으로 방학중 임금 지급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대학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았고 건강보험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임순광 2019, 89-95). 따라서 강사의 교원 지위는 제한적이고 불확실하다.

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290460Y>> [cited on 2020. 7. 16.]

2.2 시간강사와 학술정보서비스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강사가 기여하려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시간강사의 교육·연구 활동은 대학의 교원과 차이가 없고 특히 교육적 열의나 연구능력은 교수직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더 강하고 집중적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충실화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학술정보 이용이 필수적이다.

둘째, 많은 경우에 시간강사는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재 등을 이용하여 교육시키고 있으나, 법령 개정, 최근의 동향, 데이터의 수정·보완, 새로 발견된 사실과 지식의 소개 등을 통한 교육내용을 충실화 하려면 최근 교육학술정보의 입수와 반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셋째, 시간강사의 연구활동(논문 생산, 저서 발간, 학회 참석 및 발표·토론, 논문 심사, 프로젝트 수행 등)에는 많은 지식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교수보다 몽상과 반역을 위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 및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된 역사자료, 학술대회자료, 비평과 해석 등 회색문헌에 대한 접근·이용이 중요하다.

넷째, 시간강사가 법령에 따라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지는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서관의 대출책수와 대출기간이 대표적인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52개 회원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임교원은 평균 31.9책, 98.7일이었고 시간강사는 평균 18.4책, 49.0일로 절반 수준이었다(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20, 279). 이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대학 및 국가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 및 연구실적을 강화하려면 공간 제공과 연구비 지원이 중요하지만 교육연구정보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3.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

3.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3.1.1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대상은 2018년 8월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 48,264명을 연구기간과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뢰수준 95%, 허용가능한 최대오차 0.05, 모집단 비율 50%(0.5)로 설정하여 표본산출계산기²⁾로 계산하면 총 382명이다. 표집한 결과 및 인구통계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자(60.7%), 연령대는 50대(46.1%), 전공분야는 인문학(34.0%)과 사회과학(33.8%), 강의연구 경력은 만20-25년 이상(29.3%)이 가장 높았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채택하였다.

2) 표본산출계산기 <<https://www.nownsurvey.com/calculator/>> [cited on 2018. 6. 30.]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성별	남자	60.7 (232)	전공	예술체육	6.5 (25)
	여자	39.3 (150)		복합학	3.9 (15)
연령	30대	7.3 (28)		농수해양	3.1 (12)
	40대	30.6 (117)	경력	5년 미만	7.6 (29)
	50대	46.1 (176)		5-10년 미만	9.7 (37)
	60대 이상	16.0 (61)		10-15년 미만	19.9 (76)
전공	인문학	34.0 (130)		15-20년 미만	22.3 (85)
	사회과학	33.8 (129)		20-25년 미만	29.3 (112)
	자연과학	9.7 (37)		25년 이상	11.3 (43)
	공학	8.9 (34)	계	100.0 (382)	

3.1.2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먼저 설문지는 각종 문헌조사에서 수집한 교육학술정보 검색·접근·입수·이용단계의 주요 변인과 예비설문조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학교분회 30명)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일부 미흡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표 2〉와 같이 4개 영역(인구통계적 특성, 교육학술정보의 인식 및 이용현황, 만족도, 서비스 주체 및 정책)으로 구분하고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신뢰성은 척도형 총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가 일반적 기준치(0.6)보다 높은 0.881로 나타나서 본 조사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확정된 설문지는 약 6개월간(2018. 9.1. - 2019.2.15.) 각종 행사나 모임에서 직접 받거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온라인 설문방법(KSDC DB)³⁾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

법은 'PASW Statistics 1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집단별(성별, 연령별, 전공별, 강의(연구)경력별) 차이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인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3.1.3 조사·분석의 한계

먼저,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나 강의경력이 있는 전업 시간강사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개정된 「고등교육법」 14조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기간이 2018년 9월에서 2019년 2월까지로 그 당시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고, 개정된 법률의 시행·적용도 2019년 8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설문 대상자는 신분적 특성상 연락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선정하였다.

3) KSDC, "KSDC DB: Statistical and Analysis" <http://ksdcdb.kr/main.do> [cited on 2017. 7. 10.]

〈표 2〉 설문지 구성과 문항수

번호	항목	조사 내용	문항수	계
I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전공, 경력	4	24
II	교육학술정보의 인식 및 이용현황	•교육학술정보의 필요성*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중요성* •교육학술정보의 이용 목적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이용도* •교육학술정보의 입수 경로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의 발행시기 •교육학술정보의 이용빈도와 비이용 이유 •교육학술정보 접근 및 이용의 어려움*과 어려운 이유	8	
III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만족도	•일반도서(단행본)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학술(연구)논문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학위논문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회색문헌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4	
IV	교육학술정보의 서비스 주체 및 정책	•자주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 기관(서비스) •교육학술정보 접근 및 이용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필요성*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만족도* •도서관(정보센터)이 제공하는 단행본(도서)의 적절한 대출기간 •도서관(정보센터)이 제공하는 단행본(도서)의 적절한 대출책수 •단행본의 상호대차서비스 비용 부담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등의 원문제공서비스 비용 부담	8	

* 척도형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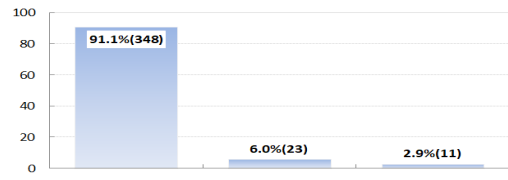
3.2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용

3.2.1 교육학술정보의 필요성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와 연구활동 등에서 교육학술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약 91.1% (매우 필요함 46.9% + 비교적 필요함 44.2%)

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에 필요하지 않은 비율은 2.9%에 불과하였다. 이를 5점 척도로 조사·분석한 평균값은 〈표 4〉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35로 매우 높았고 집단별로 성별은 남자(4.34)와 여자(4.35)가 거의 비슷했고, 연령은 40대, 30대, 60대 이상, 50대 순으로, 경력은 5년 미만·15-20년 미만, 5-10년 미만,

〈표 3〉 교육학술정보의 필요성

구분	비율 (빈도)	계(%)	비고
매우 필요함	46.9 (179)	91.1	
비교적 필요함	44.2 (169)		
보통	6.0 (23)	6.0	
비교적 불필요함	2.4 (9)	2.9	
전혀 불필요함	0.5 (2)		
계	100.0 (382)	100.0	

〈표 4〉 교육학술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검증

구분		평균	t	유의확률	구분		평균	F	유의확률
성별	남자	4.34	-.154	.878	공학	4.18	3.421	.005**	
	여자	4.35				농수해양			4.75
						예술체육			4.16
						복합학			5.00
구분		평균	F	유의확률	강의 (연구) 경력	5년 미만	4.52	3.421	.005**
연령	30대	4.56	8.737	.000**		5-10년 미만	4.41		
	40대	4.60				10-15년 미만	4.39		
	50대	4.20				15-20년 미만	4.52		
	60대 이상	4.21				20-25년 미만	4.13		
전공 분야	인문학	4.32	3.561	.002**		25년 이상	4.33		
	사회과학	4.38			전체평균	4.35			
	자연과학	4.19							

* p<0.05, ** p<0.01

10-15년 미만, 20-25년 미만 순으로 높았다. 이들을 차이검정 결과, 연령, 전공,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령은 젊을수록, 전공은 복합학, 농수해양, 사회과학, 인문학 순으로, 경력은 5년 미만·15-20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순으로 교육학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2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중요성

먼저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유형별 중요

성을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기타 관련 사이트, 통계·법령자료는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에 신문·잡지,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특허·규격자료는 중요성이 다소 낮았다. 이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평균은 3.31로 중위수(3)를 상회하였고 항목별로는 평균 학술(연구)논문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학위논문(4.00),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3.73),

〈표 5〉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중요성

(%, 명)

구분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학술(연구)논문	47.6 (182)	40.8 (156)	9.9 (38)	1.6 (6)	-
학위논문	32.2 (123)	41.1 (157)	22.0 (84)	3.9 (15)	0.8 (3)
연구보고서	21.5 (82)	43.2 (165)	23.3 (89)	7.3 (28)	4.7 (18)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20.2 (77)	41.4 (158)	29.3 (112)	9.2 (35)	-
기타 관련 웹사이트	3.5 (13)	33.1 (124)	46.3 (177)	9.9 (37)	6.4 (24)
통계·법령자료	9.2 (35)	29.3 (112)	33.8 (129)	12.8 (49)	14.9 (57)
신문·잡지	2.4 (9)	18.4 (69)	39.2 (147)	28.0 (105)	12.0 (45)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4.5 (17)	18.5 (70)	42.1 (159)	15.3 (58)	19.6 (74)
특허·규격자료	-	9.6 (36)	40.8 (153)	22.9 (86)	26.7 (100)

〈표 6〉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중요성 및 이용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60대	인문 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공학	농수 해양	예술 체육	복합 학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 25년	25년 이상	
중 요 성	학술 논문	4.35	4.37	4.31	4.75	4.50	4.19	4.31	4.17	4.39	4.27	4.56	4.75	4.40	4.80	4.41	4.49	4.41	4.36	4.13	4.58
	학위 논문	4.00	4.03	3.95	4.43	4.04	3.79	4.33	3.77	4.29	3.43	3.94	4.25	4.28	4.40	4.31	4.08	4.00	4.09	3.87	3.88
	일반 도서	3.73	3.75	3.69	4.11	3.74	3.61	3.87	4.08	3.65	3.27	3.41	3.50	3.52	3.60	3.72	3.81	3.57	3.62	3.80	3.93
	연구 보고서	3.69	3.70	3.68	4.32	4.09	3.32	3.70	3.01	4.02	3.86	4.26	4.50	3.64	4.60	4.10	4.00	3.96	4.00	3.16	3.47
	관련 사이트	3.17	3.19	3.15	3.79	3.37	2.92	3.26	3.09	3.20	3.00	3.53	3.00	3.20	3.40	3.55	3.27	3.16	3.46	2.84	3.16
	통계 법령	3.05	3.13	2.93	3.25	3.08	2.84	3.51	2.58	3.77	2.14	2.68	3.50	3.08	3.60	3.45	3.27	2.79	3.28	2.86	3.09
	정부 간행물	2.73	2.81	2.61	2.61	2.71	2.59	3.26	2.45	3.49	1.97	2.21	2.75	2.28	2.60	2.83	2.54	2.66	2.91	2.59	2.98
	신문 잡지	2.71	2.68	2.76	2.93	2.73	2.62	2.87	2.79	2.94	2.19	2.12	3.00	2.72	2.60	2.90	2.78	2.68	3.12	2.39	2.63
	특허 규격	2.33	2.42	2.21	2.07	2.49	2.16	2.68	2.02	2.86	1.97	2.47	3.00	1.88	1.40	2.62	2.30	2.36	2.46	2.15	2.37
	전체 평균	3.31	3.34	3.25	3.58	3.42	3.12	3.53	3.11	3.62	2.90	3.24	3.58	3.22	3.44	3.54	3.39	3.29	3.48	3.09	3.34
이 용 도	학술 논문	4.26	4.19	4.35	4.64	4.63	4.02	4.03	4.12	4.20	3.76	4.65	5.00	4.64	5.00	4.52	4.43	4.33	4.46	4.14	3.70
	학위 논문	3.85	3.81	3.91	4.32	4.13	3.62	3.74	3.72	3.85	3.35	3.94	4.50	4.28	4.60	4.31	3.76	3.88	4.11	3.64	3.56
	연구 보고서	3.56	3.52	3.62	4.21	3.89	3.24	3.52	3.11	3.64	3.51	4.18	4.50	3.48	4.80	4.10	3.59	3.83	3.76	3.21	3.23
	일반 도서	3.42	3.27	3.65	4.00	3.25	3.38	3.61	3.79	3.23	3.16	2.85	3.50	3.24	4.00	3.62	3.43	3.33	3.14	3.47	3.86
	관련 사이트	2.88	2.77	3.04	3.54	2.90	2.75	2.87	2.70	2.94	2.97	2.91	2.73	2.88	3.60	2.86	3.19	2.84	3.00	2.63	3.05
	신문 잡지	2.65	2.61	2.72	3.00	2.75	2.49	2.79	2.73	2.81	2.06	2.21	2.73	2.56	3.20	2.66	2.70	2.77	2.83	2.40	2.70
	통계 법령	2.64	2.61	2.68	2.93	2.77	2.38	3.02	2.41	3.00	1.91	2.56	3.27	1.92	4.00	3.45	2.38	2.79	2.54	2.52	2.49
	정부 간행물	2.45	2.47	2.41	2.25	2.53	2.27	2.92	2.18	3.02	1.55	2.12	3.00	1.92	3.13	2.72	2.14	2.40	2.77	2.19	2.69
	특허 규격	2.13	2.19	2.02	1.93	2.25	1.91	2.66	1.82	2.44	1.82	2.65	2.45	1.80	1.80	1.93	2.14	2.20	2.31	1.89	2.38
	전체 평균	3.09	3.05	3.16	3.42	3.23	2.90	3.24	2.95	3.24	2.68	3.12	3.52	2.97	3.79	3.35	3.08	3.15	3.21	2.90	3.07

연구보고서(3.69), 통계·법령자료(3.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을 이용하여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중요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를 검증

한 결과 〈표 7〉과 같이 학술(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통계·법령자료의 경우는 연령, 전공,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위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정부간행물(백서, 연

〈표 7〉 교육학술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73	.681	.497	3.350	.019*	7.042	.000**	1.424	.215
학술(연구)논문	4.35	.847	.398	8.109	.000**	3.726	.001**	3.409	.005**
학위논문	4.00	.981	.327	9.045	.000**	8.359	.000**	1.668	.141
연구보고서	3.69	.208	.836	19.102	.000**	22.104	.000**	11.872	.000**
통계·법령자료	3.05	1.647	.100	5.401	.001**	21.951	.000**	3.020	.011*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2.73	1.718	.087	5.633	.001**	20.963	.000**	1.564	.169
특허·규격자료	2.33	2.064	.040*	5.975	.001**	16.496	.000**	1.607	.157
신문·잡지	2.71	-.774	.439	1.466	.223	5.656	.000**	5.976	.000**
기타 관련 웹사이트	3.17	.354	.724	12.144	.000**	1.583	.151	6.445	.000**

* p<0.05, ** p<0.01

감)·편람(매뉴얼)의 경우는 연령과 전공에, 기타 관련 웹사이트는 연령과 경력에, 신문·잡지는 전공과 경력에, 특허·규격자료는 성별, 연령, 전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3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이용도

먼저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유형별 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기타 관련 사이트는 이용도가 높은

반면에 신문·잡지, 통계·법령자료,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특허·규격자료의 이용도는 낮았다. 이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평균은 3.09로 중위수 보다 약간 높았고 항목별로는 학술(연구)논문이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위논문(3.85), 연구보고서(3.56),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3.42), 기타 관련 웹사이트(2.88), 신문·잡지(2.65)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이용도

(%, 명)

구분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학술(연구)논문	48.7 (186)	34.8 (133)	11.5 (44)	3.4 (13)	1.6 (6)
학위논문	27.2 (104)	41.1 (157)	23.3 (89)	5.8 (22)	2.6 (10)
연구보고서	15.6 (59)	42.2 (160)	29.0 (110)	9.0 (34)	4.2 (16)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16.0 (61)	31.9 (122)	35.6 (136)	11.3 (43)	5.2 (20)
기타 관련 웹사이트	2.2 (8)	20.9 (76)	49.3 (179)	17.4 (63)	10.2 (37)
신문·잡지	3.5 (13)	14.2 (52)	40.9 (150)	26.7 (98)	14.7 (54)
통계·법령자료	3.3 (12)	18.9 (69)	35.6 (130)	22.5 (82)	19.7 (72)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3.8 (14)	9.0 (33)	40.0 (146)	22.2 (81)	24.9 (91)
특허·규격자료	1.1 (4)	6.8 (25)	32.7 (120)	22.3 (82)	37.1 (136)

다음으로 <표 6>을 이용하여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이용도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와 기타 관련 웹사이트는 성별, 연령, 전공, 경력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통계·법령자료,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특허·규격자료는 연령, 전공, 경력에, 신문·잡지는 연령과 전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4 교육학술정보의 이용 목적

시간강사가 교육학술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표 10>에서 1순위가 연구논문 작성(52.1%), 2순위가 연구과제 준비 및 수행(27.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도 연구논문 작성, 강의준비, 연구과제 준비 및 수행, 최근 연구결과나 동향 파악, 학술발표 준비, 저(역)서 집필 등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교육학술정보를 주로 연구논문 작성, 강의준비, 연구과제 준비 및 수행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교육학술정보원의 이용도에 대한 차이검증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학술(연구)논문	4.26	-1.688	.092	15.163	.000**	8.117	.000**	5.691	.000**
학위논문	3.85	-1.015	.311	9.514	.000**	5.588	.000**	4.532	.001**
연구보고서	3.56	-.928	.354	15.800	.000**	15.032	.000**	7.902	.000**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42	-.3675	.000**	4.744	.003**	6.901	.000**	3.177	.008*
기타 관련 웹사이트	2.88	-2.753	.006**	6.014	.001**	2.487	.023*	2.960	.012*
신문·잡지	2.65	-1.048	.295	3.412	.018*	4.704	.000**	2.114	.063
통계·법령자료	2.64	-.536	.592	6.728	.000**	14.425	.000**	4.572	.000**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매뉴얼)	2.45	.571	.568	5.647	.001**	18.012	.000**	4.265	.001**
특허·규격자료	2.13	1.592	.112	8.842	.000**	7.262	.000**	2.484	.031*

* p<0.05, ** p<0.01

<표 10> 교육학술정보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

(%, 명)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합*	비고 (가중치 적용의 순위)
연구논문 작성	52.1 (199)	15.7 (60)	458	
강의준비	24.6 (94)	23.6 (90)	278	
연구과제 준비 및 수행	13.9 (53)	27.5 (105)	211	
최근 연구결과나 동향파악	5.0 (19)	16.8 (64)	102	
학술발표 준비	2.6 (10)	6.3 (24)	44	
저(역)서 집필	1.0 (4)	6.3 (24)	32	
전시·공모전 등의 준비	0.8 (3)	3.1 (12)	18	
계	100 (382)	100 (379)	1,143	

* 가중치는 1순위에 2, 2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3.2.5 교육학술정보의 입수 경로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입수 경로는 <표 11>과 같이 일반도서는 소속대학(기관) 도서관과 출판사·서점에서 구입을, 학술(연구)논문·학위논문은 RISS, NDSL, KISS 등과 소속대학(기관) 도서관을, 연구보고서는 RISS, NDSL, KISS 등과 인터넷 포털을, 통계·법령자료, 특허·규격자료, 관련 웹사이트는 인터넷 포털과 전공 관련 사이트를, 정부간행물(백서, 연감)·편람은 인터넷 포털과 국립중앙(국회)도서관을, 신문·잡지는 인터넷 포털과 소속대학(기관)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일반도서는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뿐 아니라 출판사·서점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본인 자료를 많

이 이용하였다. 요컨대 시간강사는 다양한 경로로 교육학술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는데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RISS, NDSL, KISS 등, 인터넷 포털 등이 많았다.

3.2.6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의 발행 시기

시간강사가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의 발행시기는 <표 12>와 같이 1순위와 2순위 모두 2-5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도 2-5년, 1년 이내, 6-10년, 11년 이상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여 5년 이내 교육학술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교육학술정보의 입수 경로

(%, 명)

구분	본인 자료	소속 대학(기관) 도서관	다른 도서관(모교, 공공 등)	출판사, 서점	RISS, NDSL 등	국립 중앙(국회) 도서관	인터넷포털 (Google, Naver)	타기관 직접 의뢰	전공 관련 사이트	기타 (동료, 전문가 등)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20.4 (78)	44.0 (168)	1.0 (4)	22.8 (87)	6.5 (25)	-	4.5 (17)	-	0.8 (3)	-
학술(연구)논문	0.8 (3)	38.7 (148)	1.6 (6)	-	44.2 (169)	8.6 (33)	4.2 (16)	1.0 (4)	-	0.8 (3)
학위논문	1.0 (4)	31.2 (119)	1.8 (7)	-	49.7 (190)	13.9 (53)	1.0 (4)	0.8 (3)	-	0.6 (2)
연구보고서	-	26.9 (97)	0.8 (3)	-	29.2 (105)	6.4 (23)	23.9 (86)	1.1 (4)	7.5 (27)	4.2 (15)
통계, 법령자료	-	10.4 (32)	-	-	5.8 (18)	9.7 (30)	52.6 (162)	4.5 (14)	10.7 (33)	6.2 (19)
정부간행물(백서, 연감), 편람	-	14.6 (41)	-	-	8.2 (23)	19.2 (54)	40.6 (114)	1.1 (3)	11.0 (31)	5.3 (15)
특허, 규격자료	-	5.9 (14)	1.3 (2)	-	8.4 (20)	10.0 (24)	49.0 (117)	2.5 (6)	13.4 (32)	9.6 (23)
신문, 잡지	2.9 (9)	10.3 (32)	1.0 (3)	-	-	3.2 (10)	74.5 (231)	1.0 (3)	5.2 (16)	1.9 (6)
관련 웹사이트	-	1.8 (5)	1.1 (3)	-	1.8 (5)	3.7 (10)	66.1 (179)	-	17.7 (48)	7.7 (21)

〈표 12〉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의 발행기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합*	비고 (가중치 적용의 순위)
1년 이내	39.3 (150)	23.4 (86)	386	
2-5년	47.6 (182)	47.8 (176)	540	
6-10년	9.9 (38)	25.5 (94)	170	
11년 이상	3.1 (12)	3.3 (12)	36	
계	100 (382)	100 (368)	1,132	

* 가중치는 1순위에 2, 2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3.2.7 교육학술정보의 이용빈도와 비이용 이유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이용빈도는 〈표 13〉과 같이 1주일에 1-2번(26.7%)이 가장 많았고 1개월에 1-2번, 1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이용 등의 순으로 많았다. 1개월에 1-2번 이상 이용하는 빈도는 79.5%로 교육학술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학술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료의 부족이 41.1%(최신자료 부족 23.2% + 전공자료 부족 17.9%)로 가장 높았고 필요하지 않음(26.7%), 이용의 어려움(26.6%), 정보서비스 부족 및 불만족(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2.8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어려움과 그 이유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에 대한 어려움은 〈표 14〉와 같이 없음이 46.0%(전혀 없음 8.6% + 거의 없음 37.4%)로 있음(2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강사 중 강의가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도서관에 접근·이용이 가능하여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표 15〉와 같이 교육학술정보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이유에서 소속기관(대학)이 없음(32.2%)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표 13〉 교육학술정보의 이용빈도와 비이용이유

이용빈도	비율 (빈도)	비이용 이유(복수선택)
거의 매일 이용	12.8 (49)	
1주일에 3-4번	15.7 (60)	
1주일에 1-2번	26.7 (102)	
1개월에 1-2번	24.3 (93)	
2-3개월에 1-2번	7.3 (28)	
4-6개월에 1-2번	10.5 (40)	
거의 이용안함	2.6 (10)	
계	100 (382)	

〈표 14〉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의 어려움 정도

구분	비율 (빈도)	계(%)	비고
전혀 없음	8.6 (33)	46.0	
거의 없음	37.4 (143)		
보통	27.7 (106)	27.7	
비교적 많음	23.0 (88)	26.1	
매우 많음	3.1 (12)		
계	100 (382)	100.0	

〈표 15〉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이 어려운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합*
소속기관(대학)이 없음(접근이 어려움)	32.2 (69)	5.3 (8)	146
필요한(검색한) 자료가 없음	22.4 (48)	23.7 (36)	107
검색이 어려움(자료의 소재 파악이 어려움)	16.4 (35)	24.3 (37)	132
최신 자료가 없음	12.1 (26)	15.1 (23)	75
해외자료 이용이 어려움	7.5 (16)	6.6 (10)	42
상호대차나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4.2 (9)	5.9 (9)	27
필요한 자료 입수가 어려움(비용, 시간 등)	5.1 (11)	19.1 (29)	51
계	100 (214)	100 (152)	580

*가중치는 1순위에 2, 2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3.3 교육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만족도

3.3.1 일반도서(단행본)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시간강사의 일반도서(단행본)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표 16〉과 같이 보통이 46.3%로 가장 높았고 만족함(33.8%)이 불만족함(19.9%)

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는 〈표 17〉과 같이 도서관에 필요한 일반도서(단행본)의 없음이 40.8%로 가장 높았고 대출기간이 짧음, 희망도서 입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림, 대출책수가 너무 적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일반도서(단행본)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비율 (빈도)	계(%)	비고
매우 불만족	1.6 (6)	19.9	
불만족	18.3 (70)		
보통	46.3 (177)	46.3	
비교적 만족	31.2 (119)	33.8	
매우 만족	2.6 (10)		
계	100 (382)	100.0	

〈표 17〉 일반도서(단행본) 이용에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구분	비율 (빈도)
도서관에 필요한 일반도서(단행본)가 없음	40.8 (149)
도서관 대출기간이 짧음	18.1 (66)
희망도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입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림	14.0 (51)
도서관 대출책수가 너무 적음	13.4 (49)
필요한 일반도서(단행본)가 없는 경우,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움	7.9 (29)
필요한 일반도서(단행본)의 소재파악이 어려움	5.8 (21)
계	100 (365)

3.3.2 학술(연구)논문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한 이유

시간강사의 학술(연구)논문 이용 만족도는 〈표 18〉과 같이 만족함이 54.2%(매우 만족 5.8% + 비교적 만족 48.5%)로 불만족함(20.4%) 보다 높게 나타나 학술(연구)논문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는 〈표 19〉와 같이 도서관에 필요한 학술(연구)논문이 없음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접근할

수 있는 웹DB가 없음, 직접 소장기관에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비용의 문제가 있음, 필요한 학술(연구)논문의 소재파악이 어려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3.3 학위논문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시간강사의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표 20〉과 같이 만족함이 49.7%(비교적 만족

〈표 18〉 학술(연구)논문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비율 (빈도)	계(%)	비고
매우 불만족	1.6 (6)	20.4	
불만족	18.8 (72)		
보통	25.4 (97)	25.4	
비교적 만족	48.4 (185)	54.2	
매우 만족	5.8 (22)		
계	100 (382)	100.0	

〈표 19〉 학술(연구)논문 이용에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

구분	비율 (빈도)
도서관에 필요한 학술(연구)논문이 없음	33.6 (108)
접근할 수 있는 웹DB가 없음	18.7 (60)
직접 소장기관에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있음	10.6 (34)
필요한 학술(연구)논문의 소재파악이 어려움	10.3 (33)
도서관에 필요한 학술(연구)논문이 없을 경우,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이용자격, 비용 등)	8.9 (86)
계	100 (321)

〈표 20〉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비율 (빈도)	계(%)	비고
매우 불만족	1.6 (6)	16.8	
불만족	15.2 (58)		
보통	33.5 (128)	33.5	
비교적 만족	44.5 (170)	49.7	
매우 만족	5.2 (20)		
계	100 (382)	100.0	

〈표 21〉 학위논문 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구분	비율 (빈도)
도서관에 필요한 학위논문이 없을 경우,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이용자격, 비용 등)	36.2 (105)
도서관에 필요한 학위논문이 없음	20.0 (58)
접근할 수 있는 웹DB가 없음	16.9 (49)
직접 소장기관에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있음	19.0 (55)
필요한 학위논문의 소재파악이 어려움	7.9 (23)
계	100 (290)

44.5% + 매우 만족 5.2%)로 불만족함(16.8%) 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는 〈표 21〉과 같이 도서관에 필요한 학위논문이 없을 경우에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이 36.2%로 가장 높았고 도서관에 필요한 학위논문이 없음, 접근할 수 있는 웹DB가 없음, 직접 소장기관에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비용의 문제가 있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3.4 회색문헌 이용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시간강사의 회색문헌 이용 만족도는 〈표 22〉와 같이 만족함이 32.4%(매우 만족 2.6% + 비교적 만족 29.8%)이 불만족함(20.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는 〈표 23〉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모름이 32.1%로 가장 높았고 도서관에 필요한 회색문헌이 없음, 도서관에 필요한 회색문헌이 없을 경우에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필요한 회색문헌의 소재파악이 어려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회색문헌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비율 (빈도)	계(%)	비고
매우 불만족	4.7 (18)	20.4	
불만족	15.7 (60)		
보통	47.1 (180)	47.1	
비교적 만족	29.8 (114)	32.4	
매우 만족	2.6 (10)		
계	100 (382)	100.0	

〈표 23〉 회색문헌 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구분	비율 (빈도)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모름	32.1 (72)
도서관에 필요한 회색문헌이 없음	30.8 (69)
도서관에 필요한 회색문헌이 없을 경우,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이용자격, 비용 등)	18.3 (41)
필요한 회색문헌의 소재 파악이 어려움	15.6 (35)
직접 소장기관에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있음	3.1 (7)
계	100 (224)

요컨대 시간강사는 일반도서(단행본),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회색문헌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에 불만족한 이유는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유형

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이 중위수 보다 약간 높았고 항목별로 전체 평균은 학술논문(3.38), 학위논문(3.37), 일반도서(3.15), 회색문헌(3.10)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는 〈표 25〉와 같이 일반도서와 학술(연구)

〈표 24〉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60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일반도서	3.15	3.13	3.17	3.21	3.21	3.09	3.16	3.18	3.19	3.51	2.91	3.50	2.72	2.60	3.45	2.97	3.28	3.14	2.99	3.30
학술논문	3.38	3.43	3.30	3.36	3.40	3.32	3.52	3.56	3.73	3.03	2.47	3.00	3.16	2.40	3.59	3.19	3.14	3.65	3.30	3.49
학위논문	3.37	3.29	3.48	3.93	3.34	3.30	3.36	3.42	3.63	3.27	2.74	3.25	3.40	2.40	3.83	3.43	3.13	3.54	3.27	3.33
회색문헌	3.10	3.06	3.15	3.82	3.02	3.03	3.11	3.18	3.26	3.19	2.65	3.25	2.76	2.20	3.62	3.27	2.76	3.24	2.95	3.33

〈표 25〉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증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t	유의확률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일반도서	3.15	-.473	.637	.630	.596	4.899	.000**	2.803	.017*
학술(연구)논문	3.38	1.379	.169	.815	.486	17.948	.000**	3.512	.004**
학위논문	3.37	-2.087	.038*	4.562	.004**	9.554	.000**	4.030	.001**
회색문헌	3.10	-.972	.332	7.650	.000**	6.602	.000**	6.971	.000**

* p<0.05, ** p<0.01

논문은 전공과 경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위논문은 성별, 연령, 전공, 경력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회색문헌은 연령, 전공, 경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교육학술정보의 서비스 주체 및 정책

3.4.1 자주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 기관(서비스)

시간강사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 기관(서비스)은 <표 26>과 같이 1순위가 소속기관(대학) 도서관(48.4%), 2순위가 KERIS(RISS)

(25.7%), 3순위가 일반 검색엔진(Google, Naver, Daum 등)(30.7%)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소속기관(대학) 도서관, KERIS(RISS), 국립중앙(국회)도서관, 일반 검색엔진(Google, Naver, Daum 등)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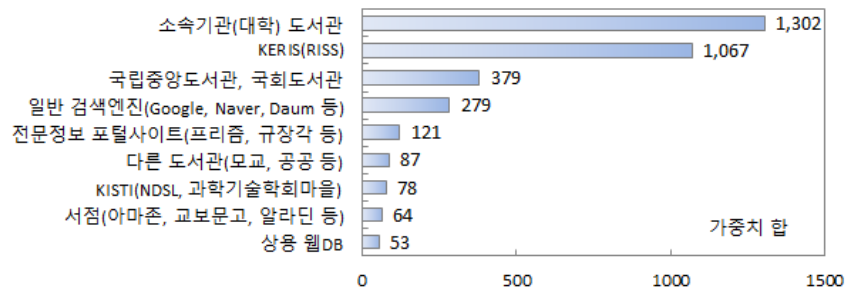
3.4.2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은 <표 27>과 같이 1순위는 소

<표 26> 자주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 기관(서비스)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소속기관(대학) 도서관	48.4 (185)	20.4 (78)	9.6 (36)	1,302
다른 도서관(모교, 공공 등)	-	7.9 (30)	7.2 (27)	87
국립중앙(국회)도서관	5.5 (21)	23.0 (88)	20.6 (77)	379
KERIS(RISS)	37.4 (143)	25.7 (98)	3.5 (13)	1,067
KISTI(NDSL, 과학기술학회마을)	2.6 (10)	1.6 (6)	1.6 (6)	78
상용 웹DB	-	5.2 (20)	3.5 (13)	53
일반 검색엔진(Google, Naver, Daum 등)	4.2 (16)	8.9 (34)	30.7 (115)	279
전문정보 포털사이트(프리즘, 규장각 등)	1.0 (4)	5.0 (19)	15.8 (59)	121
서점(아마존, 교보문고, 알라딘 등)	0.8 (3)	2.4 (9)	7.5 (28)	64
계	100 (382)	100 (382)	100 (374)	3,430

* 가중치는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그림 1> 자주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 기관(서비스) 순위(가중치 적용)

〈표 27〉 교육학술정보 접근 및 이용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

(%, 명)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합*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55.8 (213)	18.4 (69)	495
한국연구재단	21.2 (81)	40.1 (150)	312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2 (62)	28.3 (106)	230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	6.8 (26)	6.7 (25)	77
출신대학 도서관	-	6.4 (24)	24
계	100 (382)	100 (374)	1,138

* 가중치는 1순위에 2, 2순위에 1을 부여하고 각각의 응답 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임

속대학(기관) 도서관(55.8%), 2순위는 한국연구재단(4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도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한국연구재단,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3.4.3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필요성

시간강사의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표 28〉과 같이 모든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29〉와 같이 평균 3.87로 중위수(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전자자료서비스가 4.13으로 가장 높았고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4.11),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3.96), 연장서비스(3.93), 원문제공서비스(3.90), 상호대차서비스(3.84) 등의 순으로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전자자료서비스, 열람 및 대출서비스, 연장서비스는 성별, 연령, 전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예약서비스, 정보활용교육은 성별, 연령, 전공, 경력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8〉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필요성

(%, 명)

구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전자자료서비스	36.9 (138)	43.6 (163)	15.2 (57)	3.7 (14)	0.5 (2)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	36.6 (140)	42.4 (162)	16.8 (64)	3.7 (14)	0.5 (2)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	31.3 (117)	40.4 (151)	21.7 (81)	6.1 (23)	0.5 (2)
연장서비스	30.9 (118)	37.4 (143)	25.7 (98)	5.2 (20)	0.5 (3)
원문제공서비스	27.1 (102)	44.0 (166)	21.2 (80)	7.2 (27)	0.5 (2)
상호대차서비스	25.5 (96)	41.9 (158)	24.7 (93)	6.9 (26)	1.1 (4)
예약서비스	19.8 (75)	36.0 (136)	34.1 (129)	9.0 (34)	1.0 (4)
정보활용교육	8.8 (33)	43.2 (162)	35.7 (134)	10.7 (40)	1.6 (6)

〈표 29〉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60대	인문 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공학	농수 해양	예술 체육	복합 학	5년 미만	5- 10년	10- 15년	15- 20년	20- 25년	25년 이상	
전자자료	4.13	4.02	4.29	4.54	4.24	4.13	3.72	4.07	3.91	4.36	4.21	4.50	4.36	5.0	4.10	4.35	4.26	4.06	4.06	3.97	
열람대출	4.11	3.94	4.37	4.54	4.12	4.14	3.82	4.17	3.74	4.24	4.26	4.75	4.60	4.80	4.21	4.11	4.16	3.91	4.13	4.30	
필요성	희망도서· 학술지구독신청	3.96	3.71	4.34	4.64	4.05	3.91	3.59	4.07	3.49	4.55	3.94	4.50	4.24	4.80	4.21	4.27	3.87	3.81	3.86	4.23
	연장서비스	3.93	3.80	4.15	4.54	3.95	3.94	3.61	3.96	3.57	4.03	4.09	4.50	4.48	4.80	4.21	4.11	3.76	3.85	4.00	3.88
	원문제공	3.90	3.74	4.15	4.43	4.04	3.83	3.57	3.89	3.69	3.91	3.85	4.75	4.12	4.80	4.21	4.19	3.96	3.71	3.91	3.67
	상호대차	3.84	3.64	4.15	4.43	4.05	3.76	3.38	3.87	3.55	3.91	3.85	4.75	4.00	4.80	4.21	4.11	3.89	3.67	3.83	3.59
	예약서비스	3.65	3.46	3.93	4.32	3.59	3.74	3.18	3.79	3.13	3.64	3.79	4.50	4.24	4.80	4.10	3.95	3.59	3.40	3.63	3.72
	정보활용교육	3.47	3.25	3.79	3.46	3.66	3.47	3.10	3.43	3.37	3.27	3.35	3.50	4.12	4.20	3.38	3.54	3.30	3.73	3.37	3.51
	전체 평균	3.87	3.69	4.15	4.36	3.96	3.87	3.50	3.91	3.56	3.99	3.92	4.47	4.27	4.75	4.08	4.08	3.85	3.77	3.85	3.86
만족도	열람대출	3.68	3.65	3.74	4.00	3.82	3.57	3.61	3.80	3.42	3.78	3.74	4.25	4.00	3.60	4.00	3.62	3.72	3.60	3.61	3.79
	연장서비스	3.67	3.67	3.66	3.89	3.76	3.52	3.81	3.62	3.52	3.70	3.74	4.25	4.16	3.80	3.79	3.54	3.67	3.58	3.66	3.88
	예약서비스	3.52	3.43	3.65	3.89	3.74	3.34	3.43	3.54	3.28	3.46	3.65	4.25	3.80	4.20	4.10	3.62	3.47	3.45	3.36	3.65
	희망도서· 학술지구독신청	3.16	3.04	3.18	3.46	3.21	3.00	3.38	3.38	3.07	3.00	2.85	3.00	3.00	3.40	3.69	3.14	3.00	3.11	3.17	3.18
	전자자료	3.10	3.16	2.99	2.93	3.11	2.98	3.48	3.46	3.14	2.72	2.50	3.25	2.76	2.20	3.48	2.81	2.93	3.10	3.11	3.36
	원문제공	3.10	3.04	3.18	3.36	3.16	2.98	3.22	3.23	3.10	3.38	2.76	3.00	2.88	2.60	3.28	3.05	3.04	3.27	2.85	3.45
	상호대차	3.06	2.99	3.18	3.36	3.13	2.92	3.23	3.30	2.94	2.82	2.76	3.50	3.32	2.60	3.48	3.05	3.08	3.06	2.98	2.94
정보활용교육	2.81	2.85	2.75	2.50	2.88	2.71	3.10	3.05	2.95	2.45	2.00	2.75	2.80	2.60	2.86	2.71	2.62	3.04	2.69	3.10	
전체 평균	3.26	3.23	3.29	3.42	3.35	3.13	3.41	3.42	3.18	3.16	3.00	3.53	3.34	3.13	3.59	3.19	3.19	3.28	3.18	3.42	

〈표 30〉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검증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전자자료서비스	4.13	-3.088	.002**	8.089	.000**	5.782	.000**	1.428	.213
열람 및 대출서비스	4.11	-5.041	.000**	4.958	.002**	10.086	.000**	1.585	.163
희망도서(학술지구독)서비스	3.96	-7.181	.000**	9.874	.000**	13.910	.000**	2.925	.013*
연장서비스	3.93	-3.791	.000**	7.103	.000**	9.344	.000**	1.653	.145
원문제공서비스	3.90	-4.521	.000**	7.602	.000**	6.226	.000**	2.900	.014*
상호대차서비스	3.84	-5.487	.000**	12.467	.000**	7.619	.000**	2.820	.016*
예약서비스	3.65	-4.907	.000**	11.543	.000**	18.354	.000**	3.563	.004**
정보활용교육	3.47	-6.268	.000**	5.914	.001**	5.253	.000**	2.637	.023*

* p<0.05, ** p<0.01

3.4.4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만족도

시간강사의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이 정보활용교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는 〈표 29〉와 같이 평균 3.26으로 중위수(3)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3.68로 가장 높았고 연장서비스(3.67), 예약서비스(3.52),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3.16), 원문제공서비스

〈표 31〉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만족도

(%, 명)

구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보통	비교적 낮음	매우 낮음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	10.7 (41)	51.0 (195)	34.0 (130)	4.2 (16)	-
연장서비스	12.7 (48)	47.5 (180)	33.8 (128)	6.1 (23)	-
예약서비스	9.4 (35)	39.9 (149)	44.0 (164)	6.7 (25)	-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	2.7 (10)	30.4 (113)	50.3 (187)	13.4 (50)	3.2 (12)
원문제공서비스	4.3 (16)	23.6 (88)	53.1 (198)	15.8 (59)	3.2 (12)
전자자료서비스	4.8 (18)	26.1 (97)	44.6 (166)	22.8 (85)	1.6 (6)
상호대차서비스	2.7 (10)	21.9 (80)	56.8 (208)	16.1 (59)	2.5 (9)
정보활용교육	1.8 (6)	16.6 (55)	52.3 (173)	19.3 (64)	10.0 (33)

스(3.10), 상호대차서비스(3.06)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열람 및 대출서비스와 연장서비스는 연령과 전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예약서비스는 성별, 연령, 전공, 경력 모두에, 상호대차서비스는 성별, 연령, 전공에, 원문제공서비스, 전자자료서비스,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 정보활용교육은 연령, 전공, 경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5 도서관(정보센터)의 단행본(도서) 대출기간과 대출책수

시간강사는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단행본(도서)의 적절한 대출기간에 대해 〈표 33〉과 같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기간이 35.9%로 가장 높았고 3개월, 4-5개월, 1개월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행본(도서)의 대출책수도 전임교원과 동일한 책수가 39.3%로 가장 높았고 21-30권, 16-20권, 5-10권, 11-15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단행본 대출기간과 책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검증

구분	평균	성별		연령		전공분야		강의(연구)경력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열람 및 대출서비스	3.68	-1.242	.215	5.136	.002**	6.196	.000**	1.867	.099
연장서비스	3.67	.160	.873	4.176	.006**	4.016	.001**	1.267	.278
예약서비스	3.52	-2.760	.006**	9.985	.000**	7.490	.000**	5.284	.000**
희망도서(학술지구독)서비스	3.16	-1.602	.110	5.317	.001**	3.608	.002**	3.268	.007**
원문제공서비스	3.10	-1.592	.112	2.807	.040**	3.468	.002**	4.618	.000**
전자자료서비스	3.10	1.884	.060	5.448	.001**	13.297	.000**	3.361	.006**
상호대차서비스	3.06	-2.337	.020*	4.683	.003**	6.542	.000**	2.206	.053
정보활용교육	2.81	.908	.365	3.697	.012**	7.624	.000**	2.829	.016*

* p<0.05, ** p<0.01

〈표 33〉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단행본의 적절한 대출기간과 대출책수

대출기간	비율 (빈도)	대출책수	비율 (빈도)
2주일	2.6 (10)	5-10권	13.4 (51)
1개월	12.0 (46)	11-15권	10.5 (40)
2개월	6.0 (23)	16-20권	17.0 (65)
3개월	21.2 (81)	21-30권	17.5 (67)
4-5개월	15.4 (59)	31-40권	1.6 (6)
6개월 이상	6.8 (26)	41권 이상	0.8 (3)
전임교원과 동일	35.9 (137)	전임교원과 동일	39.3 (150)
계	100 (382)	계	100 (382)

3.4.6 도서관(정보센터)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제공서비스 비용 부담

시간강사가 이용하는 단행본의 상호대차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는 〈표 34〉와 같이 소속대학(기관) 도서관(59.7%)이 가장 높았고 한국연구재단, RISS, 본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술(연구)논문·학위논문 등의 원문제공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도 소속대학(기관) 도서관(54.7%)이 가장 높았고 한국연구재단, 본인, RISS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요컨대 시간강사는 소속대학(기관) 도서관이 상호대차나 원문제공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5 교육학술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상당한 수업을 담당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유능한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학구조조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거나 담당 강의수가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과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신분과 지위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대학은 시간강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학술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상호대차서비스와 원문제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

구분	상호대차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59.7 (228)	54.7 (209)
한국연구재단	13.6 (52)	15.2 (58)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4 (51)	13.1 (50)
본인	11.5 (44)	13.4 (51)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	1.0 (4)	2.9 (11)
기타	0.8 (3)	0.8 (3)
계	100 (382)	100 (382)

첫째, 시간강사 가운데 강의가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대학)의 도서관에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강사가 교육학술정보에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표 15>와 같이 순위 기입형 질문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소속기관(대학)이 없음(접근이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검색이 어려움(자료의 소재파악이 어려움), 필요한 자료가 없음, 최신 자료가 없음, 필요한 자료의 입수가 어려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속이 없는 강사의 경우, 국가나 정부가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통하여 교육학술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접근 및 이용에 책임져야 하는 기관으로 시간강사는 <표 17>에서 소속기관(대학) 도서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도서관, 출신대학 도서관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강사 가운데 강의가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대학) 도서관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 교육학술정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주체로서 교육과 학술연구 정보화를 통해 신속하고 질 높은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비가 투입된 교육·학술자료 등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간강사는 단행본의 상호대차서비스나 학술(연구)논문·학위논문 등의 원문제공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로 <표 34>와 같이 소속기관(대학) 도서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본인, 국립도서관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강사 가운데 강의가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대학) 도서관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국가기초연구지원시스템으로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관(정보센터)이 제공하는 단행본(도서)의 적절한 대출기간과 대출책수에 대해 시간강사는 <표 33>에서 전임교원과 동일한 기간과 책수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유능한 인력을 배출하고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교원과 동등한 교원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분석 등을 통한 논리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강사는 소속의 유무에 따라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용도, 만족도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시간강사가 소속을 갖는 것이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최선의 대안이지만, 대학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대학이 취해야 할 시간강사의 접근·이용 서비스 기조는 대학의 전임교원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상당히 기여하는 이상, 그리고 법적 신분도 교원인 이상 서비스 범위나 조건 등을 동

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이 없는 시간강사의 경우는 고급 인력 배출, 지식과 연구지형의 확장, 대학 및 국가의 연구 경쟁력 제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조건 정비 등의 차원에서 교육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의 편의성과 무료 이용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적 및 시스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정보환경과 정보요구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행태,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함(91.1%)이 필요하지 않음(2.9%)보다 훨씬 높았고, 교육학술정보의 유형별 중요성과 이용도는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일반도서, 기타 관련 사이트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용 목적은 연구논문 작성, 강의준비, 연구과제 준비 및 수행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입수 경로는 다양하였는데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RISS·NDSL·KISS 등, 인터넷 포털 등이 많았다.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의 발행시기는 5년 이내 정보(86.9%)였고 이용빈도는 1개월에 1-2번 이상(79.5%)이 많았다.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의 어려움은 없음(46.0%)이 있음(26.1%)보다 높았는데, 시간강사 중 강의가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도서관을 이용하여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학술정보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이유에서 소속기관(대학)이 없음(32.2%)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방증한다.

둘째, 시간강사의 교육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도서(단행본), 학술(연구)논문, 학위논문, 회색문헌의 경우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가 불만족하였는데,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도서신청이나 정보검색 등을 통한 요구자료 제공과 도서관 및 학술DB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시간강사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학술정보기관(서비스)은 소속기관(대학) 도서관, KERIS(RISS), 국립중앙(국회)도서관, 일반 검색엔진 등이 순으로 높았고, 교육학술정보 접근·이용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은 소속대학(기관) 도서관, 한국연구재단,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도서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정보센터)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3.87로 비교적 높았고 전자자료서비스,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 희망도서(학술지구독) 신청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3.26으로 중위수(3)보다 약간 높았고 자료 열람 및 대출서비스, 연장서비스, 예약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정보센터)의 단행본(도서) 대출기간과 대출책수는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을 원하고 있었고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 서비스의 비용은 소속대학(기관)도서관과 한국연구재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소속의 유무에 따라 교육

학술정보 접근·이용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용도, 만족도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간강사가 소속을 갖는 것이 교육학술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최선의 대안이지만, 대학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선택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대학은 교육학술정보서비스의 범위나 조건 등을 대학의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속이 없는 시간강사의 경우는 접근·이용의 편의성과 무료 이용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적 및 시스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립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20. 『國立大學圖書館報』, 38: 279.
- [2] 菊池 信彦. 2013. 若手研究者問題と大學図書館界：問題提起のために.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315: 13-20.
- [3] 김수진. 2015.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4]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 2011.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89-208.
- [5]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6] 이란주, 김수진. 2015. 주제별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선생연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29-153.
- [7] 이명희, 정혜련. 2012. 디자인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99-316.
- [8] 임순광. 2019. 교수노동시장의 변화와 강사법. 『경제와 사회』, 121: 62-108.
- [9] 한종엽, 서만덕. 2014. 해양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163-187.
- [10] Bickerstaff, Susan and Octaiano Chavarin. 2018. "Understanding the Needs of Part-Time Faculty at Six Community Colleges."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November: 1-12.
- [11] Heider, Kelly L., Sandra Janosko, Joann Janosko, Blaine Knupp and Carl Rahkonen. 2012. "Faculty Perceptions of the Value of Academic Libraries: A Mixed Method Study."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e-journal)*, 1-24.
- [12] Kumar, Anil, Nasima Salmani and Sukhleen Baweja. 2014.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by the Research Scholars & Faculty Members: A Survey Study of Kurukshetra University Kurukshetra in the Disciplines of Life Scienc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9(6): 119-13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Council on National College & University Libraries. 2020. *Bulletin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8: 279.
- [3] Kim, Su-Jin. 2015. *A Study on Information Us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4] Kim, Jeong-Hwan, Kim, Jay-Hoon and Hwang, Jae-Young. 2011. “A Study on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Doctoral Researchers in Digit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189-208.
- [5] Kim, Hwang-Woo. 2012.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6] Lee, Lan-Ju and Kim, Su-Jin. 2015. “A Study on the Literature Review of Information Use Behavior in Specialized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129-153.
- [7] Lee, Myeong-Hee and Jung, Hye-lyun. 2012.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Professors in Design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99-316.
- [8] Lim, Soon-Kwang. 2019. “The Change of the Professor Labor market and the Revised Lecturer Law.” *Economy and Society*, 121: 62-108.
- [9] Han, Jong-Yup and Seo, Man-Deok.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ag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163-187.